

## 광주 중학교 육성회비 폐지

### 수업료·교재구입비 면제 이어 사실상 무상교육

광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신학기부터 중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수업료, 교재구입비 면제에 이어 무상교육의 3대 실현조건으로 꼽혔던 학교운영지원비(옛 육성회비)가 사라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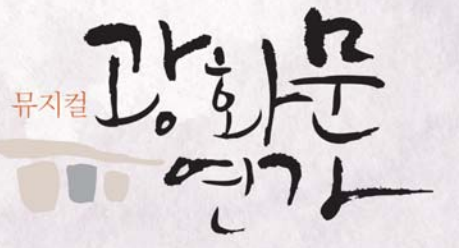
비용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달부터 중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운영지원비를 전액 무상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중학생은 수업료와 입학금, 교과서 구입비용과 더불어 학교운영지원비까지 면제받는 등 사실상 헌법에서 규정한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시 교육청은 체험학습, 방과후 활

동비와 급식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를 제외하고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함에 따라 사실상 무상교육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학부모들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학교운영지원비 20여 만원을 납부했다. 교육청이 이번에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함에 따라 학생 1인당 연간 20만6400원을 면제받는다. 수혜대

상은 전체 86개 중학교, 6만8000여 명으로, 연간 지원규모는 140억9000여 만원이다. 학교운영 지원비는 학교운영에서 모자란 경비를 학부모들이 보충해 주는 성격으로, 학교 회계직원의 인건비, 교직원 연구수당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학부모들로부터 거둬들이는 140억원을 제외한 1260억원을 학교에 지원해왔다. 시 교육청은 이 재원을 교육청에

지원되는 정부보조금 가운데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여 마련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정된 교육청 재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끌어올려 따라 학교 인프라 확충 등 현안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올해부터 학교 운영지원비를 전액 면제하는 지역은 광주를 비롯해 강원·경기·경남·전북·제주 등 6곳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헌법에 보장된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한 발짝 더 나아가 오는 2013년까지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중학교의 완전 무상교육이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

## 알림 **광주일보 창사 59주년 기념**



### 4월 22~24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 오늘 오후 2시 티켓 오픈

‘난 아직 모르잖아요’, ‘붉은 노을’,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옛사랑’ (고) 이영훈 작곡가의 히트곡들로 꾸며지는 창작 뮤지컬 ‘광화문 연가’가 광주를 찾아옵니다. 광주일보사가 올해 창사 59주년을 맞아 주최하는 ‘광화문 연가’는 이영훈씨가 직접 대본을 썼으며 그의 히트곡 30여곡으로 엮여진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로 세 남자의 가슴 시린 사랑과 이별, 그리움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에는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의 송창의, 가수 윤도현과 리사, ‘비스트’의 양요섭 등이 출연하며 ‘헤드워’의 이지나가 연출을 맡는등 한국 뮤지컬계 최고 스태프진이 함께 합니다. 옛사랑의 아름다운 기억을 떠올리게 해 줄 ‘광화문 연가’에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날짜=4월22(금)~24(일)
- 장소=광주문예회관 대극장
- 주최=광주일보사, KBC
- 주관=KBC미디어룸 영문엔터테인먼트
- 예매처=인터파크, 스티켓
- 문의=062-220-0541

光州日報社

## “가거도에 해군기지 구축을”

### 전남도, 섬 활성화 대책 추진

전남도가 국토의 최서남단에 있는 가거도에 해군기지 구축을 요청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는 8일 정부에 도내 2200여개에 달하는 섬 지역의 안보 강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람 사는 섬’만들기 종합대책을 마련, 국무총리실 등 6개 부처에 건의했다. 천혜의 경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람 손길이 닿지 않아 방치되다시피 했던 섬을 ‘보물섬’으로 바꾸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전남도는 특히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가 국토 최서남단에 위치, 해상 방위상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데도 불구하고, 안보에 극히 취약하다는 점을 들어 가거도 해군기지 구축을 요청했다. 목포에서 152km 떨어진 곳에 있는 가거도(면적 7.98km)는 537

명의 주민이 살고 있지만 중국 어선 및 범죄조직의 지속적인 밀입국 시도로 안보 취약 지역인데다, 섬과 물을 오가는 유동 인구에 대한 신원확인 시스템도 없어 치안 불안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대규모 양식장 개발 및 수출 산업화 촉진 ▲섬 지역 여객선 운임 및 물류비 지원 ▲섬 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원원 체계 구축 ▲어선 현대화 사업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사항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제44차 중앙통합방위협의회에서 박준영 전남지사가 섬 지역 안보강화 방안으로 정부에 제안한 섬 개발 활성화 후속 조치로 국무총리실이 이를 총괄하고 관계부처에서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용암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미국 하와이주 하와이 섬의 킬라우에아 화산의 푸우오오 분화구에서 분출된 용암이 흘러내리고 있는 사진을 최근 공개했다. 28년째 활동중인 화산 활동이 격화되면서 용암이 20m 높이까지 분출되고 있다. 과학자들은 킬라우에아의 동부 지구대를 따라 폭발 분화와 분기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미국 하와이주 하와이 섬의 킬라우에아 화산의 푸우오오 분화구에서 분출된 용암이 흘러내리고 있는 사진을 최근 공개했다. 28년째 활동중인 화산 활동이 격화되면서 용암이 20m 높이까지 분출되고 있다. 과학자들은 킬라우에아의 동부 지구대를 따라 폭발 분화와 분기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대형업체만 배불리는 영산강사업

### 국가에선 현금 받고 협력업체엔 어음 지급

영산강살리기사업에 참여한 대기업들이 정부가 현금으로 건넨 선금금을 하청업체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어음을 주는 등 부당한 관행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갖고 공

개한 ‘4대강 국민혈세 우선지급 특별실태 고발’에서 “익산국토관리청이 발주한 11개 사업 2010년 예산액 3152억3200만원 중 정부가 선금금으로 41%인 1296억2400만원을 지급했으나 이 중 24%인 308억9400만원만 하청업체에 건넸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자료에서는 영산강 6공구 공사를 맡은 (주)한양은 지난 2002년 예산액(1110억원) 중 489억9600만원을 선금금으로 받아 24%인 117억3700만원만 하청업체에 썼으며, 영산강 2공구 시공업체인 삼성중공업 역시 2010년 예산액(850억원) 중

305억원을 선금금으로 받아 79%인 240억1400만원을 뺀 64억8600만원(21%)만을 하청업체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영산강 3공구 시공업체인 대아건설(주)은 2010년 예산액(291억5900만원) 중 선금금으로 111억7400만원을 받아 하청업체에는 고작 3%인 3억1300만원, 영산강 4공구 시공업체인 가산토건(주) 역시 2010년 예산액(287억7200만원) 중 선금금 130억원을 받아 하청업체에 10억원(8%)만을 지급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정부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4대강 158개 사업장 중 59개 사업장

에서 원청 대기업은 1조3000억원을 받아 71%인 9300억원을 차지하고 하청업체에는 29%인 3700억원을 지급했으며, 실제 13개 공구의 선금 사용 계획서와 실제 지급 내역을 비교한 결과 계획 대비 44%만 하청업체에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또 경실련은 “이러한 부당한 관행이 원청 대기업에 선금금을 지급했지만 정작 건설 노동자는 임금 체불과 낙장지급, 불법어음, 비자금, 노동착취 등으로 생존권마저 위협받으며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처지”라며 “직접 시공제와 직접지급제, 공정임금제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조이여행사**  
JOYTRAVEL

대표전화: (062)234-322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151-1번지 FAX: (062)234-3141

대표이사 최금환  
http://www.joy2000.co.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광양에서 광양해리로 떠나는 큐슈 은천여행**  
실속 ₩399,000~ 품격 ₩429,000~  
불포함: 광주-광양수송비, 기사&가이드팁(40,000원)

**따뜻한 남쪽에서 봄을 느끼는 대마도 여행 (대아고속)**  
1박2일 ₩298,000 2박3일 ₩398,000  
▶출발날짜: 4/14, 5/12 불포함: 국내(광주-부산)수송

**광주에서 출발하는 울릉도**  
1박2일 ₩279,000 2박3일 ₩309,000

**오렌지호&스타크루즈호로 떠나는 제주도여행**  
목포-제주도 2박3일 ₩139,000원~  
장흥-제주도 2박3일 ₩159,000원~  
불포함: 기사&가이드팁 10,000원, 수송비(광주-목포&장흥)

**실속 빌라형콘도**  
▶출발일: 4/3, 7, 15, 26 ▶불포함: 기사&가이드팁  
4일 ₩369,000~  
상품특전: 빗쭈름체험 · 구은계란증정

**출발확정**  
온천의 지미 고품격 스키우 온천체험  
4일 ₩569,000  
출발일: 4/1 불포함: 기사&가이드팁 ₩449,000  
상품특전: 일본전통 가이세키요리 · 노천온천체험 · 빗쭈름체험 · 구은계란증정

**출발확정**  
따뜻한 봄날 야나가와 벚꽃이 + 온천체험  
4일 ₩549,000  
출발일: 4/1 ₩549,000  
출발일: 3/26, 4/21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2억원 영업보통보험 가입 / 여행보험 가입업체 \*공통: 항공 및 선박, 전동버스 / 전지역 \*공동: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보통보험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경비: 항공(탄,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박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약시 계약서(해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여행**